

 POSRI 보고서

AIIB 출범: 아는 만큼 활용한다

오영일 수석연구원, 산업연구센터 (youngil@posri.re.kr)

[목 차]

1. AIIB 출범의 의미
2. AIIB 운영 방식과 주요 지원 사업 예상
3. AIIB 활용을 위한 4대 대응방안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한국 등 총 57개국이 참여 신청을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이 빠르면 올 연말 정식 출범하며 동북아 국가에게 유리한 또 하나의 다자개발은행(MDB)이 탄생하게 됨
 - 80~100억 달러의 자금이 AIIB를 통해 매년 역내 인프라 시장에 신규 공급
 - AIIB 출범은 새로운 틀에서 사업기회가 창출된다는 의미이므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
- AIIB의 주요 사업 범위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며, 운영 방식은 기존 MDB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
 - 도로/철도, 에너지, 통신, 물류 분야 중 경제성이 담보된 사업이 우선 대상
 - 중국의 일대일로(一帶一路) 사업이 우선 고려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이 역시 동일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경제성이 약하면 지원이 어려울 것임
 - 자금 지원은 AIIB가 수원국(受援國) 정부에게 차관을 주는 형식(정부 차관)
 - 비회원국인 북한에 AIIB 자금이 적극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 -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 극동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신청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임
- [대응 1] AIIB 자금 지원 방식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AIIB 자금 활용이 기업에 왜 유용한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
 - AIIB 자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행 절차, 많은 요구사항 등 AIIB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AIIB 자금 사업은 ‘그림의 떡’이 될 수 있음
 - 저개발 신흥국 진출 리스크 경감 뿐 아니라 초기 진입 장벽만 넘으면 이후에는 연속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음(MDB 사업의 장점은 별첨 참조)
- [대응 2] 주요 대상국의 경제/산업 정책을 분석하여 유망 사업 발굴, 기획
 - ADB, IBRD 등의 국가 전략 보고서와 최근 각국 정부가 발표한 핵심 경제/산업 정책,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 차원의 유망 사업 아이디어 기획
 -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와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공략해야 함
- [대응 3] AIIB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AIIB에 제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원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‘솔루션 제공형’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
 - 금융 제공, 마케팅 및 경영 노하우 전수, 기술 이전 등을 담은 사업 제안
- [대응 4] AIIB 사업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풀 구축
 - 입찰자격 요건, Co-financing, 역외국 협업을 활용하는 전략

1. AIIB(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) 출범의 의미

-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총 57개국이 참여 신청을 한 AIIB가 빠르면 올해 말, 늦어도 내년 초 정식 출범할 전망
 - 미국, 일본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참여국, 자본금 규모에서 ADB(아시아 개발은행)와 견주어 큰 손색 없는 거대 조직
 - 아시아 역내국은 물론, 유럽 20개국, 중동, 아프리카, 브라질, 러시아, 터키, 호주 등 57개국 참가 확정(러시아는 역내국으로 신청)
 - 당초 500억 달러 수준으로 생각했던 자본금은 참여국 증가로 1,000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(cf. ADB 자본금 1,638억 달러, 67개 회원국)
 - 초대 총재는 진리췌(金立群) AIIB 임시 사무국장(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)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며, AIIB 본부는 베이징에 설치될 전망
 - 약 40명으로 운영될 임시 사무국 인원 중 절반은 중국 재정부 출신 인원으로, 나머지는 외국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
- 동북아 지역 개발에 유리한 또 하나의 다자개발은행(MDB: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)이 탄생¹
 - ADB의 주요 지원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
 - ADB의 경우 동북아 지역(25억 달러)에 대한 지원보다 동남아(62억 달러), 남아시아(60억 달러), 중앙아(55억 달러) 지역에 집중 지원
 - 따라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 받은 중국 동북, 러시아 극동, 몽골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
 - 일본, 미국 등이 불참하는 AIIB는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할 수 있음
 - 중국과의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, 일본의 AIIB 불참은 사업 수준 측면에서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 - 기존 MDB의 경우 중요 안건 승인을 위해 회원국 85%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(IBRD, IFC)과 일본(ADB)은 16%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반대하면 중요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(실질적 거부권)
- AIIB 출범은 새로운 틀에서 사업기회가 창출된다는 의미이므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

¹ MDB란 개도국 사회, 경제, 산업 기반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(eg. ADB, IBRD, IFC, EBRD, AfDB, IDA 등)

- 자본금 규모와 신설 은행임을 고려할 때 AIIB를 통해 연간 80~100억 달러의 자금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신규 공급될 전망
 - ADB는 아시아 지역에 연간 210억 달러('13년 기준)를, IBRD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63억 달러('14년 기준)를 지원했음²
- 사업수행 능력과 준비 상태에 따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유리한 구도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
 - AIIB는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이 적고, 새로운 틀에서 준비되는 공간
 - ADB, IBRD 등이 다루지 않던 새로운 영역의 사업 기회 확보 가능

2. AIIB 운영 방식과 주요 지원 사업 예상

□ AIIB 운영 방식은 기존 MDB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

- 자금 지원은 수원국(受援國) 정부에게 AIIB가 차관을 주는 형식(정부 차관), 사업자 선정은 국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
 - 수원국 정부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AIIB가 사업성 검토 후 차관 제공
 - 지원 받은 자금으로 수원국 정부가 국제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
 - 단 기존 MDB 보다 사업 선정 프로세스는 다소 단축될 것으로 보임
- 수원국 정부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, 사업성과 관계없이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사업은 공여(Grant) 형식으로 지원될 전망
 - 지진, 홍수, 재난 및 경제위기 시 특별 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긴급 지원

□ 중국은 최대 지분국으로서 AIIB 운영 및 자금 지원 방향 설정 등에는 영향력을 미치겠지만, 세부적인 운영 측면까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임

- 예상과 달리 회원국이 크게 늘었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, 일본의 시선을 고려할 때 중국이 무리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
 - 중국은 AIIB에서 30% 내외의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IBRD, IMF, ADB 등에서 미국, 일본 등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포기
 - 현재 특정국 지원 한도 설정과 대지분 보유국의 의결권 제한 등 중국 관련 사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 중

² ADB 지원 규모 210억 달러는 ADB 자체 자금 144억 달러와 Co-financing 자금 66억 달러로 구성됨. 참고로 Co-financing이란 AIIB 지원 자금과 별도로 사업자가 자체 조성한 자금을 뜻하며 PPP(민관 협력사업)의 경우 자주 활용됨

- 영국 등 유럽 국가 가입 유도 과정에서도 국제적 운영 규범 준수에 대한 압목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

□ 명칭에서 보듯 AIIB의 주요 사업 범위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

- 인프라 분야 중 경제발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로/철도망, 해상물류망, 에너지, 통신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
 - 설립 취지, 중국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금융, 법률, 제도, 교육, 의료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임
- 우선 사업 대상이라도 경제성이 담보되는 사업만 지원될 것임
 - AIIB 역시 외부감사를 받고 신용등급을 받는 은행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간과할 수 없음(cf. ADB의 신용등급은 최고등급인 AAA)
 - 57개 회원국이 각출한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AIIB도 자금회수 가능성, 사업성 등 모든 운영 프로세스에 있어 철저한 심사 절차가 불가피
 - 사업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민관 협력 사업(PPP: Public-Private Partnership)을 선호할 것임
 - 중국의 일대일로(一帶一路) 사업이 우선 고려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이 역시 동일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경제성이 약하면 지원이 어려울 것임

□ 많은 국내 언론의 기대와 달리 AIIB 자금이 북한 인프라 개발 투자에 적극 활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

- 기본적으로 북한은 AIIB 가입이 거절된 상태
 - 중국이 북한 가입을 거절한 표면적 이유는 북한의 금융,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³
 - 회원 가입,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융, 재정, 통화 관련 자료 제공은 필수이나 북한은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다 해도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⁴
- 북한에게 고려할 수 있는 지원은 소규모 공여성 자금(Grant) 정도
 -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확실한 명분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
 -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한 북중 접경 지역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, 일대일로 사업의 기점은 중국으로 북한은 일대일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⁵
 -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 극동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신청하면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임

³ 한국, 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감싸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

⁴ 주간동아, 2015년 4월 10일(982호)

⁵ 인민일보, 2015년 4월 13일 (일대일로 노선은 별첨 참조)

3. AIIB 활용을 위한 4대 대응방안

□ [대응 1] AIIB 자금 지원 방식의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AIIB 사업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

- AIIB 자금 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지원과 내부 공감대가 없으면 AIIB 사업도 다른 MDB 사업처럼 관심을 갖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임
 -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중국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AIIB 사업은 준비부터 실행까지 많은 시간과 엄격한 심사 절차가 불가피
 - 실제 MDB 사업의 경우도 ‘할 수만 있다면 좋다’는 인식은 있지만 준비기간이 길고 요구사항이 엄격하다는 점, 그리고 경험 부족에 따른 막연한 회피 심리 등으로 기업 내 실제 성과는 많지 않음(MDB 사업의 장점은 별첨 참조)
- 향후 논의될 AIIB 운영 방안의 특징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MDB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
 - 언론 기사는 물론, 정확한 해석과 배경 파악을 위해 유관부처인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(지역금융과, 국제기구과)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
 -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기존 MDB와의 차별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기존 MDB 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

□ [대응 2] ADB, IBRD와 경쟁해야 하는 AIIB 입장에서는 초기 소프트 랜딩을 위해 유망 사업 발굴에 주력할 것이므로 기업 차원의 주요 대상국 유망 사업 발굴 필요

- 글로벌 공적 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기대하는 분야 파악을 위해 ADB, IBRD 사이트에 공개된 국가 전략 리포트를 우선적으로 확인
 - MDB 국가 전략 리포트에는 수원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 반영되어 있음⁶
- 각국 정부가 발표한 핵심 경제/산업 정책, 전략을 면밀히 분석
 - MDB 지원을 받기는 다소 곤란하지만 해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업으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사업을 분석

⁶ 국가 전략 리포트는 기관마다 명칭이 다른데 ADB는 Country Partnership Strategy(CPS), IBRD는 County Assistance Strategy(CAS)라 부름

-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혜택이 못 미치는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AIIB 취지와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음

<표 1> 주요국 경제/산업 정책

국가	주요 경제/산업 정책 및 전략
중국	일대일로, 서부개발, 창지투 개발
러시아	극동 선도개발 지역, 극동 루스키 섬 개발
인도네시아	해양강국 발전, 중기개발계획('15~'19년)
몽골	국가 개발전략 2007-2021(도로·교통·에너지·도시계획)

□ **[대응 3]** AIIB 사업은 기업이 아닌 수원국 정부가 AIIB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수원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'솔루션 제공형'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

- 난맥상이 되는 부분을 뚫어주는 '솔루션'을 함께 제안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 받을 수 있음
 - 금융, 마케팅, 경영 노하우 및 기술 이전 등이 솔루션 대상
- 솔루션이 포함된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여 수원국 정부와 긴밀히 교섭하는 '기획형' 사업으로 추진해야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
 - 사전 교감 없는 입찰 참여로는 수주 가능성 희박
 - 제안서 기획, 현지 정부 교섭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리 매니저 시스템 도입이 필요

□ **[대응 4]** AIIB사업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풀 구축

- AIIB, MDB 등 글로벌 공적자금 사업은 입찰자격 사전심사(PQ: Pre-Qualification) 요건이 까다로워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
 - 중국이 최대 지분국임을 감안할 때 경쟁력 있는 중국 EPC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
 - Co-financing을 위한 신디케이션 론 측면에서는 해외 인프라 사업 및 운영(BOT, BOO 등) 경험이 많은 호주계 IB(eg 맥쿼리 등)과 파트너십 형성
- 역외 회원국 배려 사업의 공동 참여를 고려한 역외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 준비
 - 시공 분야는 터키, 고부가 기술 분야는 유럽 업체 등이 대상

4. 시사점

- 아시아 저개발 신흥국 진출에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 AII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 - MDB 사업의 사례를 볼 때 초기 진입 장벽만 넘으면 이후에는 연속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음
 - AIIB도 MDB 방식처럼 턴키 보다는 분할 발주 가능성이 높으며, 이 경우 1차 시행사가 연속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 - AIIB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
 - ‘기획형’ 사업으로 접근해야 수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의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국가와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
- AIIB 설립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ADB, IBRD 자금 활용에도 관심
 - AIIB의 흥행 대박으로 위기감을 느낀 기존 MDB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활용하는 전략도 동시에 고려
 - ADB가 중국개발은행(CDB) 및 중국수출입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이외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힘(4월3일 스티븐 그로프 ADB 부총재의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)
 - IBRD와 ADB는 그간 미온적이던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을 전격 추진키로 최근 결정
 - 4월21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ADB는 많은 신흥국들이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는 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
 - 각국 현지 사무소에 일부 권한을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심사에서 집행까지의 기간을 6개월 가량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절차 도입 준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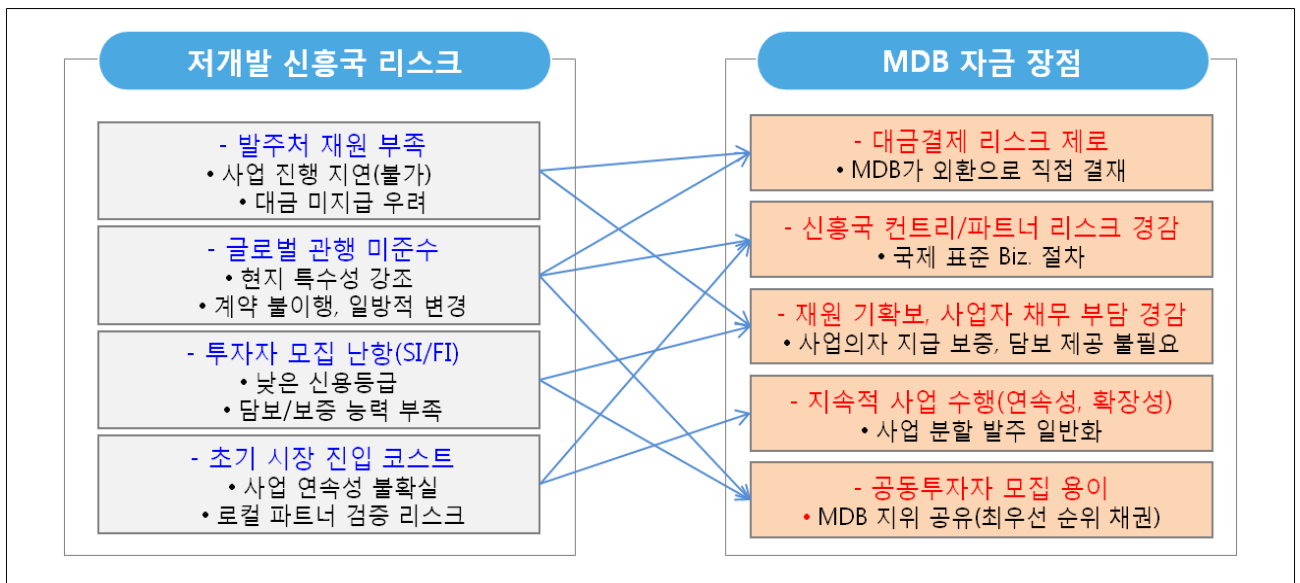
[별첨 1] 중국 일대일로 청사진



- * 일대일로 사업: 중국에서 시작되어 중앙아, 유럽, 서아시아, 페르시아만, 지중해, 남아시아, 동남아, 인도양, 남태평양으로 연결되는 3개의 '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'와 2개의 '21세기 해상실크로드' 건설 프로젝트

자료: 한국일보, 2015년 4월 14일

[별첨 2] 저개발 신흥국 리스크를 줄여주는 MDB 자금의 장점



[참고자료]

[홈페이지]

ADB(www.adb.org)

[언론]

한국일보, 2015.4.14

인민일보, 2015.4.13

주간동아, 2015.4.6(982호)